

##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마 5:17~20과 以信稱義 교리

차 창 모

(총신대신대원 2년)

### 서론

선교 1세기를 갓 넘은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수적 증가를 경험했다. 기독교 인구가 전체 국민(남한만)의 25%를 상회한다 하니 실로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늘 들려오는 소리는 “기독교 정신이 없다” “기독교 문화가 없다” “한국에서는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기독교 내부의 소리와 교회를 “탐욕의 화신”으로 욕하는, 교회 밖의 소리이다.

한국 교회는 1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수적 증가를 가져왔지만 사회에는 전혀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를 심어 오지 못했다. 즉,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 오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최근 성경을 ‘구속’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던 보수주의적 입장을 비판하고 성경을 ‘창조’라는 더 넓은 틀 속에서 이해하려는 신학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신학 조류는 ‘창조’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함으로써 타락 전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 (창 1:28)을 강조한다. 때문에 보수 교회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사회 참여’ 문제를 ‘문화 명령’적 차원에서 실행할 것을 역설한다. 이제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

본고는 역시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문화 명령적' 접근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의 범위'를 묻지만 본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물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 보수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때문에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근거'를 찾아내어,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상당한 정도는 '이신칭의' 교리의 왜곡된 가르침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윤리(성경 윤리)를 혼탁케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한국 보수 교회의 성경 해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박윤선 박사의 마태복음(5:17~20) 주석을 분석하여 그의 성경 해석의 전제인 '이신칭의' 교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그로 인한 본문의 오역을 바로 잡고, 구원과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기독교인 각 개인이 올바른 '이신칭의' 교리 속에, 올바른 '윤리'(즉, 하나님의 뜻)를 실천해 간다면, '사회 정의'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 윤리는 잘 뿌리 박힌 개인 윤리의 산출물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sup>1)</sup>

## 1. 마 5:17~20 : 교의 신학적 접근('이신칭의'의 전제)

박윤선 박사의 산상 설교의 주된 관심은 '구원론'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산상 설교 출발점을 행위 구원이냐? 믿음을 통한 구원이냐?의 논쟁으로 시작한다.<sup>2)</sup> 그는 바울 신학의 핵심적 구원론인 '이신칭의(以信稱義)교리'의 전제를 갖고 본문을 해석했다. 때문에 그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

1) George L.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예수와 하나님나라, 이태훈역, 도서출판 엠마오), p. 352.

2) 박윤선, *공관복음 주석*, 영음사(1969), pp. 164~167을 보라.

컬음을 받으리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진정한 신자들에 한하여서는 율법을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직접 관계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받을 영광의 크고 작은 문제에만 직접 관계를 갖는다”<sup>3)</sup>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일부분을 범한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하겠으나, 다만 천국에서 상이 적은 것 뿐이다.”<sup>4)</sup> 계속해서 그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를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이 구절은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든 뜻이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본적이며 외식적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불의’이다. 고로 그들의 ‘의’보다 나은 ‘의’는 같은 종류의 연장이나 확대가 아니고 그것의 말살이고 온전히 새 종류의 ‘의’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난 자의 ‘의’이다”<sup>5)</sup> 이상근 박사도 같은 견해를 다루고 있다. “율법의 준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천국에 들어갈 자의 크고 작음, 즉 상급을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sup>6)</sup>

루터파의 기준을 갖고 있던 렌스키(R. C. H. Lenski)도 이 구절이 믿음에 의한 의를 말하는가 생활에 의한 ‘의’를 말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후자의 견해를 반대했다.<sup>7)</sup>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행하지 못한다 해도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다.”<sup>8)</sup>고 주장한다. 구원과 관련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상급’과 관련될 뿐이다.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론에서 제외된다. 천국과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sup>9)</sup>

이상의 해석이 과연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정훈택 교수는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 믿으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과 믿고 행

3) 상계서, p. 174.

4) 상계서, p. 175.

5) 상계서, p. 175.

6) 이상근, 마태복음 주석,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1985), 96.

7) R.C.H. Lenski, 마태복음 주석, 문창수 역, 복음서원, pp. 188~189를 보라.

8) 정훈택, 신약에서의 기독교 윤리의 근거, 논문, p. 11.

9) 상계서, p. 11

하는 사람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말(미래에 완성된) 천국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의인과 순종치 않은 의인이 함께 섞여 살게 될 것인가?"<sup>10)</sup>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불법을 행한 자가 어찌 천국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행함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수많은 성경(갈 5:21, 고전 6:9,10, 약 3:2~12, 롬 2:6~8)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직 믿음으로’는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것은 성경 해석의 논리적 귀결이다.”<sup>11)</sup>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만 한다.

## 2. 마 5:17~20 : 주경 신학적 접근

우리는 본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교의 신학적 접근 방법은 본문의 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이신칭의’라는 ‘교의’적 전제(Presupposition)는 행함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수많은 성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못하는 것을 ‘상급’의 유무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러므로 본문의 뜻을 ‘저자의 원래의 의도’<sup>12)</sup> 대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경 신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1) 산상 복음의 구조에서

산상 복음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서론부 5:3~16, 본론부 5:17~7:12, 결론부 7:13~17. 그리고 결론부는 다시 4부분으로 나뉜다. 첫 단원 5:17~20, 둘째 단원 5:21~48(여섯 반제), 셋째 단원 6:1~18(유대인의 세 가지 경건 생활 구제, 기도, 금식), 넷째 단원 6:19~7:12(여러 가지 교훈들). 특히 첫 단원인 마 5:17~20은 본문의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명령의 일반적인 근거가 된다.<sup>13)</sup> 이처럼 마 5:

10) 상계서, p. 11.

11) 상계서, p. 12.

12) 최근 편집 사학파의 영향으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자의 의도를 파악 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 사이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때문에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의도’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 정훈택, 산상 설교, 한국로고스연구원, pp. 41~51을 보라.

17~20이 산상 복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척 중요하다.

이 첫 단원은 기독교 윤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으며, 율법을 어기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즉, 구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2) 산상 설교의 특성에서

“산상 설교는 개개 제자를 위한 천국의 서론적 교훈이다. 즉, 그 백성에 속한 자가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가르친 말씀이다.”<sup>14)</sup>

“때문에 이곳에서는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신조에 대하여 많이 취급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 교리와는 심각한 긴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예수님의 윤리적 교훈을 그의 구속 사명으로부터 분리하려 했던 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을 윤리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려 했던 자들이다.

도널드 거스리(Donald Guthrie)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수의 윤리적 교훈을 그의 구속 사역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했던 자들과 복음을 구속의 측면을 무시하고 윤리와 동일시하려 했던 자들 모두의 생각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고 말았다.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서 그 근원을 찾게 된다.”<sup>16)</sup>

### (3) ‘크다’ ‘작다’의 의미(마 5:19)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켰던 것이 마 5:19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14) 상계서, p. 37.

15) Matthew Henry, 마태복음 주석, 고영민 역, 기독교문사(1980), p. 174.

16)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Theology*(신약신학, 김근수·정원택 역, 기독교문서선교회(1988), p. 1010.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루터파의 기준에 서 있는 주석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의 '교의적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두 천국에서의 상급의 유무(有無)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해야 한다면 이런 결론은 부적당하다. 천국과 관련된 긍정적 결과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음'으로 그리고 그 부정적 결과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음'으로 표현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마 18:1~4). 천국에서 크다 불리우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며 그 이외에는 거부당하는 것 뿐이다."<sup>17)</sup> 그러므로 율법의 작은 것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바리새인과 서기관<sup>18)</sup>의 '의' 제자들의 '의' (마 5:20)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하셨는가를 밝혀야 한다. '율법'의 문제를 상급의 '유' '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들의 '의'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라기보다는 '악'이라고 이야기한다.

때문에 제자들의 '의'와 그들의 '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들을 대할 때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 준수' 자체를 비판하신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비판하신 것은 중심이 없는 외식을 비판하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 23:23에 분명히 나타난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은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행위는 너희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금식(마 9:14, 막 2:18)했으며, 안식일(막 2:4, 눅 6:2)을 지켰고, 모든 율법(눅 18:11)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본문

17) 정훈택, 신약에서의 기독교 윤리의 근거, p. 11.

18) '바리새인'은 한 분파요, '서기관은 직분'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주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비판하셨다(마 23:13, 25, 27, 막 7:1).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에서 말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그들보다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의'란 다름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기”<sup>19)</sup>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제자들이 능가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sup>20)</sup>

이상이 본문이 주는 진리이다. 이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으며, 때문에 율법의 적은 것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율법'을 더욱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국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전통적인 '구원론(오직 믿음으로)'과 상충되는가?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3. 마 5:17~20과 구원론(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구원론'이다(롬 3:10, 4:3, 5:1, 10:9, 갈 2:16).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이 명제를 '참'이라 간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모든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왔던 마 5:17~20의 해석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성경 전체의 진리와 이 구절은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가? 도대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가? 그것과는 상관 없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는가?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해석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19) 정훈택, 산상 설교, pp. 112.

20) 상계서, pp. 133~134. Matthew Henry도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마태복음, 고영민 역(1980), p. 211을 보라. William Hendrikson, 마태복음, 아가페 출판사(1986), p. 441을 보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본문을 행함의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 하는 이론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은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윤리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윤리이기 때문이다."<sup>21)</sup> 그리고 '성령', '율법', '의', '마음'은 모두 합쳐서 전체를 이룬다. 그와 같은 것이 거듭남의 증거이다.<sup>22)</sup>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은 증거는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살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것"<sup>23)</sup>이다. "이 내적인 의는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며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sup>24)</sup>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난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마 3:10), "그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마 7:16)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 7:18),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 이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졌다. 예수께서 마 5:19~20에서 하신 말씀은 믿음과 상관 없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만을 강조하여 행위를 구원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너희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기서 '윤리'와 '믿음'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어진다. 만일 참된 신자, 구원받은 신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라면 그에게 있어서 '윤리적 행위'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며,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다(약 2:17).

그러므로 이제 '구원론'은 새롭게 가르쳐져야 한다. '구원'은 어느

21) Donald Guthrie, 전제서, p. 1010.

22) John R. W Stott, *Christian Counter-culture*, 예수님의 산상 설교, 김광택 역, 생명의 말씀사(1991), p. 81.

23) D.M. Loiyd Jones, *Studies in the Sermon on the Mount*, 문창수 옮김, 정경사(1991), p. 293.

24) A. W. 핑크, 산상수훈 上, 지상우 옮김, 도서출판 엠마오(1988), p 90.



한 순간 심리적인 확신으로 완성되고 그 다음의 '삶' 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 하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믿음' 과 '행위' 즉, '종교' 와 '윤리' 라는 두 개의 나무로 나타나며, 두 나무는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이다.

### 맺음말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왜곡된 '이신칭의' 교리는 이제 새롭게 가르쳐져야 한다.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안경' 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 로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스스로를 윤리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미신이다."<sup>25)</sup> "산상 설교의 배경은 이 악한 세대이며(마 5:13~16) 여기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은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옛 세대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세상의 표본들이 되어야 한다."<sup>26)</sup>

지금 한국 땅에는 1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존재한다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산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 와 '사랑' 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명심하자. 우리에게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개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나는 주님의 참 제자인가?'

25) 김세윤, 성경과 하나님 나라, 논문, p. 59.

26) George L. Ladd, 전계서, p. 344.